

‘붉은 말 기운 품고 힘차게 비상하라’…광주시·전남도체육회, 병오년 새 설계

“명품 스포츠도시 도약’ 원년으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와 시민 체육복지 확대, 2028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분야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병오년 새해 “엘리트·학교체육 경쟁력 강화, 시민 참여 확대와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 2028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등 5대 분야 28개 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 확대와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제공한다.

이에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5개 자치구체육회 주최 대회를 확대해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행정에서도 투명과 공정을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한다.

전 회장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투명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며 “회재, 인명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올해 2028 광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 부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종목별 선수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시민 참여 붐 조성, 경기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 등 단계별 준비를 본격화한다.

특히 21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하는 체전인 만큼 대회 ‘운영 분야와 시설 분야로 나눠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의 대거 참가 및 광주 판내 모든 체육시설 점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 회장은 “2026년은 2028 광주 전국체전을 향한 중요한 도약의 해”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체육회,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발굴·육성 주력…엘리트 학교체육 경쟁력 강화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8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단계별 준비 착수

먼저 엘리트·학교체육 분야에서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과 종목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경기력 향상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회장은 “엘리트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이 정립돼야 광주체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오는 제10회 제주 전국체전에서 10위권을 목표로 대표선수를 육성 선발하겠다”며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서 부상 방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광주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예산 회계 계약 관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청렴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특히 12월에 있을 민선3기 체육회장 선거를 대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체육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쾌적한 체육시설을 관리에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전 회장은 “엄주종합체육관, 월드컵 경기장, 무동야구장 등 광주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개·보수와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

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며 “회재, 인명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올해 2028 광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 부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종목별 선수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시민 참여 붐 조성, 경기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 등 단계별 준비를 본격화한다.

특히 21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하는 체전인 만큼 대회 ‘운영 분야와 시설 분야로 나눠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의 대거 참가 및 광주 판내 모든 체육시설 점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 회장은 “2026년은 2028 광주 전국체전을 향한 중요한 도약의 해”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체육회,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체육회, 지속 가능한 스포츠클럽 확대

전갑수 회장 “스포츠클럽은 지역 생활체육 핵심 플랫폼”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이 참가한 2025 스포츠클럽 탁구 교류전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는 빛고을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지정스포츠클럽 확대를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확대 계획은 엘리트 생활 학교체육을 연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는 등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스포츠클럽 소속 청소년 선수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생활·학교·엘리트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스포츠 인재 발굴에도 힘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체육회와 등록스포츠클럽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스포츠클럽 전환을 희망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제공, 행정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각종 스포츠클럽 국비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도 전액 감면되는 등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체육회 등 중앙단체 국비 확보 대응을 강화해 지정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 운영, 종목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스포츠클럽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 전국 단위 스포츠클럽 교류전 참가도 확대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광주 스포츠클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8년부터 광주에서 개

최되는 전국(소년) 체전에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광주 개최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해는 스포츠클럽이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국비 공모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지정스포츠클럽 확대와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클럽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A등급’

2년 연속 선정…국비 2억 확보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지역 사회 중심체육 기반을 넓혔다.

또한 전남도장애인체육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체력 평가 및 맞춤형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한 생

활체육 활동을 꼭넓게 지원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우수 시·도 인증과 함께 올해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국비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새로운 100년’ 여는 원대한 시작”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시했다.

송 회장은 “올해 전남도체육회는 내 실있는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체육행정 시스템 고도화와 회원중복단체 평가·등급심의를 통해 선진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과 청렴·인권 교육, 진단컨설팅 대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AI 시대에 걸맞은 체육행정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을 핵심 키워드로 한 브랜드 강화 전략을 추진해, 전남도체육회

회 참가 확대를 통해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전남 출신 선수들이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선수 발굴·육성 체계를 공고히 한다.

송 회장은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 대회 개최, 지정·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체험캠프 및 체육영재 발굴 캠프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예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도모 투명·공정 기반 AI시대 걸맞는 체육행정 시스템 구축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 전남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

가 명실상부한 전남체육의 컨트롤타워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문체육 분야에서 주요 전국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육성·관리와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을 통해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는 병오년 공정하고 선진적인 체육행정, 세계로 응비하는 전남체육인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화합, 전남체육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 강화를 핵심 목표로 공정·육성·화합·소통의 4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융합을 지향하는 발전을 통해 전남체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정사진을 제

정”이라며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지원 확대와 과학적 훈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남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고 각종 전지훈련 유치,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전남을 전지훈련의 중심지자 국제 스포츠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으로 “2026년은 전남체육 8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정한 행정과 체계적인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전남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 해남·진도서 동계전훈

전남 육상 꿈나무 문혜솔·박지성, 투척 종목 합동훈련 참가



전도공설운동장에서 동계합숙 훈련중인 육상 종·장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여건이 한몫한 것으로 전남체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동계합숙훈련 기간 선수단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시설 운영 협력은 물론 속박, 의료, 안전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육상 스타들이 국가대표 후보에 발탁된 것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현장 지원자들의 혼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남이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전지훈련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신진서, 상금·승률·연승 3관왕

김은지, 전체 다승 1위

기사결정전(2억원)에서 우승컵을 안

았고 국내 대회인 하나은행 바둑 슈퍼

매치, GS칼텍스배, 명인전에서 정상

에 올라 5관왕을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중국 간조리그에 출전

하지 않아 2024년 상금 14억천만원보

다니소 줄었다.

신진서는 지난해 21연승을 달리며 6

7승 11패, 승률 85.90%를 기록해 연승과

승률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여자대회에서 5개의 타이틀을 석권한 김은지 여단은 총 4억원의 상금을 거머쥐며 전체 3위에 올랐다.

다음 부문에서는 김은지가 남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총 121국을 소화해 최다 대국을 기록한 김은지는 90승 31패, 승률 74.38%로 승률 6위, 연승(11연승)은 4위에 오르며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연합뉴스〉